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15명 기소

전주시검, 중간 수사결과 발표... 4명 구속기소·11명 불구속 기소·4명 기소유예 처분

전주시검은 9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에 관련해 15명을 기소하고 4명이 기소유예를 처분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혐의자인 전 전북도의원 N씨와 K씨 등 2명과 핵심브로커인 모 인터넷언론매체 전 전북본부장 K씨, 태양광시설업체 사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과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전 부안군 부군수 N씨 등 공무원 3명과 전 전북도의원 K씨의 부하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되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량사업비는 지역의원들에게 배정돼 지역구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도의원들은 5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K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 보강사업을 진행해 브로커로부터 2,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K씨는 리베이트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북도위원직을 사퇴했고,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전북도의원 N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준 뒤 업체 대표에게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80만원을 선고받고 1,540만원을 추징당했다.

핵심 브로커 K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도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납품을 청탁해 예산을 확보한 뒤 업체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현직 전북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로 앞으로 리베이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는 확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지 의원은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업의 필요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예산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 사업자의 시공 시설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비리를 낚낱이 밝혀내 법의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명지 의원은 9일 기습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돕기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9일 기습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돕기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청주시 수해복구 자원봉사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사)전주시자원봉사회 회원 등 50여 명은 9일 청주시 수해 현장의 복구를 돕고 피해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수해 복구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른 아침 전주를 출발해 수해 피해가 심한 청주시의 모충동 수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배

와 장판을 교체하고 마을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명지 의장은 "이번 수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청주시민들이 수해의 상처를 딛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며 "수해 복구에 함께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완산구, 롯데월드몰서 가정위탁아동 문화체험 활동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에서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등 총 7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체 및 가족 기능 상실로 위탁가정에서 양육·보호받고 있는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 소통의 장을 넓히고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위탁부모와 아동이 모처럼의 나들이를 맘껏 즐기고 다양한 해양생물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서로간의 대화의 폭을 넓히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들은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체험하는 아쿠아리움 탐방 후에 가진 직업 체험 과정에서는 막연하기만 했던 직업적 지식의 습득을 통해 자연스레 장래의 꿈에 대해 서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간의 정을 더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나경숙 가족청소년과장은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과 따뜻한 대화와 정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요즘,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공감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탄소융합기술원, 체험학습 공간으로 재탄생

올해 현재까지 당진시청 공무원 등 약 500여명 방문... 맞춤형 견학프로그램 운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오늘과 미래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체험·학습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올해 현재까지 국내 탄소산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체험하기 위해 학생과 공무원, 기업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기술원을 방문했다.

기술원에는 지난해 1,004명이 찾은 등 해마다 탄소산업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해마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관련 업체 등에서 1000~2000여 명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 충남 당진시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북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과정 교육생, 군산여고·완산고·광주 서석고 학생, 부경대·전주대

교수 및 학생, 경남도의회 의원 등 계각층의 방문객 500여명이 기술원을 다녀갔다.

기술원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는 현장체험 및 자유학기제 실시로 인해 방문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기술원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체험·견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원은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등 일반 방문객을 위해서는 탄소산업의 개요와 기술원이 보유한 탄소제품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상용화기술센터에 구축된 최신 장비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기술원이 탄소기술개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전주시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발전 홍보대사와 탄소산업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도 적극 하겠다"며 "탄소산업 체험, 견학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지인 전북 전주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 견학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063-219-3690, maverick@kctech.re.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덕진구, 신규 임용 공무원 멘토링 운영

전주시 덕진구는 9일 신규 임용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한 마당 '우문현답' 시간을 가졌다.

덕진구 공무원 멘토·멘티 24명이 참여한 우문현답 시간에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방문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주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하나의 명소가 된 전주 시민들 이터에서 생활속의 문화예술과 잘 노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선이 구청장은 "멘토링 활동은 조직과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선후배 소통을 통해 행복한 직장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행복하게

일하고 그 행복을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덕진구는 각 직렬별 팀장급 공무원 12명과 임용 1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멘토링제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고3학생 3명, 내신 위해 시험지 빼돌려

전북교육청 감사 착수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지난달 4~7일에 시행된 기말고사 도중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발견돼 감사에 나섰다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한 학생이 휴지통에서 빼돌려진 시험지를 발견하고 교사에게 제보해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시험지를 빼돌린 A양을 비롯해 기말고사 문제를 공유한 3명을 밝혀냈다. A양 등은 새벽에 임시교무실인 강당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남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시험지가 유출된 과목의 교사들에게 경고를 내렸다. 또한 시험지가 유출된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현재 시험지를 훔친 학생들은 자퇴서를 제출해 자퇴처리가 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사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시험지 유출 경위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이상민 기자

경찰, 직권남용 혐의 군산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군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해양수산과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공무원 2명이 2012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품을 조사한 뒤 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